

럭셔리 콘도 ‘솔레어’ 타운을 바꾼다



‘솔레어’의 럭셔리한 실내모습.

“독특하다.” ‘솔레어(Solair)’의 개발사인 코어(KOAR)의 로렌트 오프먼 매니저는 프로젝트를 한 마디로 평가해달라 말에 ‘Unique(독특한)’를 외쳤다. LA한인타운 월셔와 웨스턴에 지어지고 있는 럭셔리 콘도미니엄 프로젝트 ‘솔레어’는 그의 말대로 정말 특이하다.

한인타운의 다른 콘도 프로젝트와 달리 스튜디오와 1베드를 유닛이 아예 없다. 모두 2베드, 3베드 유닛 뿐이다.

타겟도 아이들이 있는 단독주택 소유자들이다.

이에 대해, 솔레어 프로젝트의 건축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아키온의 크리스 박 대표는 “한인타운 주거지의 대부분이 임대용이다. 주택소유율이 낮을 수 밖에 없다. 다른 프로젝트들과 달리 솔레어는 LA의 주거문화를 바꾼다는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

KOAR의 브루스 로스먼 대표는 달라지는 월셔와 웨스턴 거리를 상상해보라고 주문했다.

로스먼 대표는 “월셔와 웨스턴 사거리 북동쪽에 솔레어가 지어진다. 북서쪽에 마당 프로젝트가 진행중이다. 남서쪽에 ‘머큐리’

가 입주할 기다리고 있다. 이들은 LA한인타운 뿐 아니라 LA의 건축역사를 바꿀 프로젝트들”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솔레어 프로젝트에는 항

상 ‘럭셔리’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닌다. 펜트하우스에서부터 ‘등급’이 다르다. 솔레어에는 12채가 펜트하우스 유닛으로 들어갈 예정이다.

이들의 크기는 2200~2300 스



LA한인타운 월셔와 웨스턴에 들어서는 초대형 럭셔리 주상복합건물 ‘솔레어’의 조감도를 중심으로 시공 주역들이 모였다. 왼쪽부터 설계를 맡은 크리스 박 ‘아키온’ 대표, 투자 및 시공을 담당한 KOAR의 브루스 로스먼 대표, KOAR의 로렌트 오프먼 프로젝트 매니저. <김상진 기자>

어피트. 여기에 일반 콘도 유닛만 한 1100 스캐어피트에 달하는 테라스 공간이 추가된다. 22층의 고층빌딩인 만큼 ‘전경’이 프리미엄으로 들어간다.

문해 최고의 작품들을 벤치마킹했다”고 밝혔다.

‘솔레어’ 콘도의 분양가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부동산업계에선 LA한인타운

1억6천만불 들여 웨스턴·월셔 인근 22층 건설

내년 1월 분양...초호화 펜트하우스 12채 눈길

인테리어 디자인에도 정성을 다했다.

특히 동양적인 색채가 가미될 것으로 예상된다.

크리스 박 대표는 “디자인, 시공 관계자들이 수차례 한국을 방

7가와 세라노에 지어진 세라노 팰리스 타워의 분양추이를 살펴보고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층과 2층 샵핑몰에는 소매업 소들이 들어간다.



4만 스캐어피트 공간에 36개 유닛이 입주하게 된다. 샵핑몰 렌트비는 5~7달러5센트에 캄차지가 붙는다.

김기정 기자
kijungkim@koreadaily.com

솔레어 프로젝트

예산 1억6000만 달러. 22층 규모로 오는 2008년 완공 예정이다.

대지 9만 5000평. 건물면적은 75만 5000평. 1, 2층은 소매업용. 3층부터는 아파트로 운용된다. 총 186세대가 들어간다.

오는 8월 중순에 착공한다. 센타가 오픈할 수 있으며 1차 분양 예정이다.

솔레어(Solair)

솔레어 프로젝트에 담당하고 있는 아키온의 크리스 박 대표는 “솔레어와 LA를 합친, 빌딩에서 살게 될 것”을 만든 단어다.

또 솔레어의 ‘솔레어’는 예술품에서 등장하는 ‘폴딩 테크닉(Folding technique)’에서 영감을 얻었다.

누가?

솔레어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만든 프로젝트다. 설계는 대표적인 LA 건축사 크리스 박이 맡았다.

투자 및 시행은 LA와 메트로 합동개발(MTA)이 담당한다. 코어는 20억 달러의 동산 개발을 담당한다. 일본의 수퍼 포터 디자인을 한